

광역교통망 확충 3개 사업 예타 통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기대

- 서부권 광역급행철도(김포-서울 30분대로 연결), 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(동남권 초광역 경제권 1시간대로 연결), 수도권 제1순환선(구리~성남) 지하고속도로(수도권 외곽순환선 지하화 첫 시행)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의결
- 국가장학금, 산단개선지원 2개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(안) 보고
- 임기근 2차관, 초혁신경제 실현, 탄소중립, 지역소멸 등 국가전략어젠다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예타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

기획재정부는 2025.7.10.(목) 10:00,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「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」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·의결하고, 「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(안)」을 논의하였다.

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】

이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.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.

우선, ❶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·계양,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*하는 사업으로, 교통 수요를 분산하여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시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청량리역 구간은 GTX-B와 공동 운행

❷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,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, 부산·양산·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마지막으로, ⑨수도권 제1순환선(구리~성남)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~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,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·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한편,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【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(안) 】

한편 '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①국가장학금 사업군*, ②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**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.

* '24년 기준 교육부 등 3개 부처에서 4.8조원을 투입해 맞춤형 장학, 우수학생 장학 등 지원

** '24년 기준 산업부, 국토부, 환경부 등 3개 부처에서 0.7조원을 투입해 노후산단 재생 및 구조고도화, 스마트·그린화, 안전체계 구축 등을 지원

①국가장학금 사업군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 및 사회이동성 개선에 기여하였으며, 소득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. 또한 장학금 지원규모의 증가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실부담액·실부담률* 등 대학등록금 부담도 지속 감소되어 왔으나,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구간에서 '24년 실부담률이 12.2%로 나머지 구간(2~4% 수준)보다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 [등록금 실부담액] = (등록금) - (장학금) | [등록금 실부담률] = (실부담액) ÷ (소득)

이에 따라, 장학금의 성과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, 낮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높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'하후상박형 제도*'를 제안하였다. 이와 같이 개선할 경우, '35년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약 5,000억원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계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.

* (예) 1인당 연간 평균 지원금액 (1~3구간) +30만원, (4~6구간) △10만원, (7~9구간) △60만원

국가장학금 외 여타 장학금은 취업연계, 인재양성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 개선,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 국가근로장학금은 기존 중앙집중적인 운영방식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

하도록 개선하고,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기업 취·창업 장려 등 산업 정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·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, 국가우수장학금은 중장기적 성과지표 미비로 효과성 분석이 제한되어 향후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.

②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관해서는 첫째,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. 각 부처 사업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·산업부가 ‘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*’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나, 각 사업마다 별도 선정절차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만큼, 조정기관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또는 지자체의 관리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, 노후산단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통합적·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.

* 노후거점산단법에 의거 사업지구 지정 및 8개 부처, 40여개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지원

둘째, 노후산단 증가*에 따라 재정소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다. ‘스마트에너지플랫폼’ 등 개별기업 지원사업의 축소 및 수익자 부담 확대,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있는 ‘산단환경개선펀드’, ‘노후산단재생 융자사업’과 관련하여 공동투자 인센티브 도입 및 투자범위 확장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.

* 노후산단 수(착공 후 20년, 국가산단/일반산단): ('15) 36/100 ('20) 43/133 ('25) 45/169

셋째, 재정투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·제도 등 개선방안이 모색되었다.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의 주요사업으로 도로·주차장 등을 지원 중이나 관련 비용이 상당한 만큼, 근로자가 희망하는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입지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거나 노면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언급되었고, ‘스마트산단 환경조성사업’을 통해 구축한 산단별 인프라·데이터의 통합 관리 강화를 통해 시·공간적 제약을 해소하여, 궁극적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사업 수혜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.

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'26년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검토·추진할 예정이다.

아울러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(ex,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)하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「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」 개정안을 의결하였다. 이에 따라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재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
회의를 마치며 임 차관은 “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AI 등 산업경쟁력, 저출생,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,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 또한,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”면서 “조속히 검토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
담당 부서	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	책임자	과 장	김완수 (044-215-5410)
		담당자	사무관	조문경 (keepangel88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김 정 (correctkim@korea.kr)
	재정관리국 재정사업심층평가팀	책임자	팀장	이고은 (044-215-8781)
		담당자	사무관	박재홍 (jwpark1202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훈 (kdh50000@korea.kr)

참 고

예비타당성조사 결과, 타당성 확보 사업 현황

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사업

- (사업위치) 경기 김포시(장기역) ~ 부천시(부천종합운동장역) (신설),
부천시(부천종합운동장역) ~ 서울(청량리역) (GTX-B 공용 운행)
- (사업규모) 연장 49km(신설 21km, 공용28km),
정거장 10개소(신설 4개소, 공용 6개소), 차량기지 1개소
- (총사업비) 26,710억원

② 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사업

- (사업위치) 부산 금정구(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) ~ 기장군 ~ 경남 양산시
~ 울산 울주군(KTX 울산역)
- (사업규모) 연장 47.4km, 정거장 11개소, 단선전철
- (총사업비) 25,475억원

③ 수도권 제1순환선(구리~성남)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

- (사업위치) 경기 구리시(퇴계원 IC) ~ 성남시(판교 JCT)
- (사업규모) 연장 31.5km(지하도로 30.5km), 4~6차로, 소형차 전용
- (총사업비) 46,550억원